

리서치팀

☎ 82-2-3774-0451

## 1. 통화전망

###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5원~1,120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와 연동해 하락 우위 속 보험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조달을 위한 기업 증세와 미국 정부의 엄격한 금융시장 규제에 달러 표시 자산의 수요는 약해질 것으로 보여 달러화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 이에 더해 다만 중국 4분기 GDP, 12월 소매판매, 고정 자산투자 등 견조한 중국 경기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환율에 하락 요인. 다만 지난 주 미국 금리 급등에 환시 참가자들이 숏물량 거둬들이고 있고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흐름 이어지며 타이트한 수급 여건은 환율 하단 지지 요인. 한편 한국은 1월 18일 12월 ICT수출입 동향, 20일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

###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1900~1.24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부양책 시행 가능성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에 연동해 상승 우위를 전망. 다만 부양책이 이미 공개된 호재고 그 동안 기대심리에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취임 이후 예상보다 위험선호심리가 강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임. 또한 백신 보급에 있어 재고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안전자산 수요 이어질 요인. 20일 바이든 취임 전후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명단,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퇴거, 취임식 군중 난입 여부. 1월 21일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 지난 12월 자산 매입 규모와 기간을 확대한 바 있어 금년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1월 22일 유로존 및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PMI잠정치 발표될 예정. 21일 미국 주간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 급등 후(96.5만명) 추가 증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4000~0.9750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엔/달러는 미국 부양책 통과 기대감으로 인한 위험선호심리에 약보합 전망. 지난주 엔/달러는 미국채 금리와 연동하는 흐름을 이어갔음. 20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 재차 반등을 시도하며 엔/달러에 약세 압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상황으로 부양책 의회 통과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 다만 19일 예정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지속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엔/달러 하단 지지 요인.

## 2. 지수전망

###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400~3,80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미국 국채 금리 동향과 코로나 19 확산 상황,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강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바이든 당선인이 오는 20일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 예상된 가운데, 새 정부 시작으로 인한 기대 심리가 증시를 지지할 것으로 보임. 다만 부양책 기대로 주가가 이미 큰 폭 오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증세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음. 19일 진행될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도 관심이 쏠리는데 직전 연준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투자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금주 넷플릭스와 인텔, 골드만삭스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적 부진 기업의 추가 하락 강도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증시 상단을 제한할 요인.

## 3. 상품전망

###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7~55.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을 주시하며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주 중국에서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고 허베이성이 전격 봉쇄되며 중국 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 중국은 전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만큼 최근까지 아시아 지역 내 원유수요를 견인해 중국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지난주 미국 원유 Rig수는 전주 대비 12기 늘어나며 8주 연속 증가하며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감도 원유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코로나 사태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날 춘제를 전후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원유 상단을 제한. 이에 금주 코로나 확산 여부 주시하며 약보합 등락을 예상.

###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20~1,940USD

예상 레인지: 24.00~3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우위를 보여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부양책과 백신, 실적이라는 세가지 요인이 그간 증시를 지지하며 위험선호심리 재료였던 만큼 백신 안전성 우려가 확대되고 주요 기업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유입될 경우 증시 조정 이어지며 안전자산 수요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에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에 더해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이 확대되며 달러화 중장기 약세 가능성이 시장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에 긍정적.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http://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